

## 료카쿠테이

료카쿠테이(遼廓亭)는 혼보오모테몬 안쪽에 있는 두 다실 가운데 하나로 또 하나의 다실인 히토테이(飛濤亭)와 더불어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
료카쿠테이도 다른 곳에서 건너지로 이축했지만, 다른 건물과 달리 교토고쇼에서 이축된 것이 아닙니다. 에도 시대에 교토에 살았던 유명한 화가 오가타 고린(1658~1716년)의 저택에 있던 것이었습니다. 개인 저택의 일부로 설계된 것이지만, 다실로서 많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출입구는 크기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몸을 굽히지 않으면 드나들 수 없습니다. 이에 따라 각계각층 사람들이 참가하는 다회에서 평등하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생겨납니다. 료카쿠테이는 평소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, 사전 예약을 통해 단체 견학이 가능하며 밖에서 건축상의 특징을 배우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정원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.